

# 금강권역 물 부족지역 영농불편 해소 기여 전망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기재부 3분기 예타 통과

전북도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26일 실시한 기획재정부 '20년 3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제2차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019년 5월부터 올해 7월 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6), 정책성 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32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금강II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그간 금강I지구, 금강II지구 사업 시행으로 금강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용수간선 체계는 구축했으나 개별 농경지까지 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근 지역 가뭄발생 및 배수지체 등 지역 주민의 영농에 심각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사업 추진을 통해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를 대상으로 10개년단 4,146억원을 투입해 용수

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에 안정적 용수 공급과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등 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타대상사업 선정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분야에서 20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최근 침체된 농업SOC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만 한 큰 성과이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단 총 8,761ha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경지재정리사업(6,515ha), 경지정리사업(1,397ha), 발기반정비사업(849ha), 용수로 연결(142km)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6,583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412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경지재정리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비영농기(11월~이듬해 4월)에 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 기간은 건설산업의 비수기에 해당되는 동절기 기간으로 지역 건설산업 및 건설자재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

진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이원택·신영대·김수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 원 및 전북출신 정운천 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대상으로 분석자료 제공 등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 이루어 낸 쾌거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동안 기재부 차관 및 관련 실국장을 연달아 면담하며 지역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 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농업에 따른 기술발전, 농업농촌 유지, 식량안보, 농가 소득증대 등을 불러오는 기초가 될 것이다"며 "전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과 정책효과(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치밀한 준비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코로나19발 경제회복과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국 교육장과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 유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교육부-전국 교육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도교육청 "8호 태풍 '바비' 대비 철저히"

24시간 비상상황실 운영

8호 태풍 '바비'가 북상중인 가운데 도교육청이 태풍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학사운영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26일 오전 9시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 상황과 학사운영 조정 등을 즉각 보고토록 했다.

학사일정 조정은 학교교육과로, 피해 상황 보고는 시·군 교육지원청 및 정책공보관 학생안전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 1시 기준 익산 1개교, 남원 1개교, 김제 1개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전주 2개교, 군산 1개교, 익산 2개교, 남원 3개교, 김제 1개교, 무주 2개교, 순창 1개교, 부안 2개교 등 총 23개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

도교육청 송우석 학생안전관리지원단장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주요 대응사항을 숙지해 달라"면서 "아울러 학교시설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제공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은성 기자

# 삼례~김제IC 확장 예타 통과

전북도, 2315억원 투입 2028년 완공 목표

전북도는 26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이 경제성 및 정책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무난하게 예타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추진 사업으로 반영돼 익산시 왕궁면(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김제IC)까지 18.3km구

간에 총사업비 2,315억원을 투자, 기존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1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고 급변 예타통과에 따라 2021년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호남고속도로는 전북도의 관문으로 중심부를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도민에게는 상징성이 매우 큰 자존심과 같으며 지역을 방문하는 차량이 주요 목적지로 이동시 대부분 경유하는 중요 노선임을 강조했다.

또 최근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화,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일교통량이 2017년 3만 9천대에서 2019년 4만6,000대로 연평균 8%정도 증가했고 동일구간 내 차로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전북도를 필두로 전주, 김제시, 완주군은 물론 전북연구원, 지역정차권인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고속도로가 확장되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말끔히 개선되고 1970년대 건설돼 불량한 선형과 노후 시설물 정비로 이용차량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삼락농정대상 선발

내달 18일까지 접수

전북도는 지난 6년간 도정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일해온 농어업인들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전북 삼락농정대상' 후보자를 다음달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상 분야는 ▲보람찾는 농민 ▲재깁받는 농업 ▲사랑찾는 농촌 3개 분야이며 삼락농정 실현에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와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도민의 장이나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의 장이나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수상자 및 현재 삼락농정 위원(185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 기간은 오는 9월 18일까지로 시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하며 각 시·군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조례로 정한 메달과 상패를 수여하고 농식품 인력개발원의 영농·영어교육 강사 우선 위촉, 전북도 데미셀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라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자
- 스피치 컨설턴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김양욱 교수)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9월 중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